

# 광주시민 1만 명, '평화의 사자' 되어 광주를 평화로 물들이다!

## HWPL, 25일 세계평화선언문 6주년 기념식 및 평화 걷기대회



▲25일 서울 올림픽공원에서 열린 세계평화선언문 6주년 기념식 및 평화 걷기 행사에서 HWPL 이만희 대표가 발제하고 있다.



▲25일 광주 시민공원에서 HWPL이 주최한 '세계평화선언문 6주년 기념식 및 평화 걷기' 행사에 시민들이 참석했다.

### 진정한 평화 실현을 위한 완전한 답, DPCW 지지 촉구



▲25일 광주 상무시민공원에서 열린 '세계평화선언문 6주년 기념식 및 평화 걷기' 행사에서 HWPL 광주전남지부 이재섭 이사가 기념사를 전하고 있다.

UN 경제사회이사회 및 글로벌소통국에 등록된 평화 NGO인 HWPL은 지구촌에 전쟁을 끝내고 평화를 실현하기 위한 '세계평화선언문'을 2013년 5월 25일 발표하고, 이를 기념하기 위해 해마다 기념식과 평화 걷기대회를 열고 있다.

특히 올해는 HWPL이 세계평화와 전쟁종식을 위한 해답으로 제시한 DPCW(지구촌 전쟁종식 평화선언문) 평화국제법 제정에 각국 지도자들의 지지를 촉구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각 국가원수에게 DPCW 지지를 촉구하는 '평화의 손편지'(피스레터)를 발송한 것에 대한 답신을 촉구하는 퍼포먼스가 진행돼 눈길을 끌었다.

이만희 HWPL 대표는 이날 기념사를 통해 "대한민국

은 이 땅과 민족이 양단되고 갈라져 있다. 어느 나라보다 우리나라가 필요한 것은 평화통일"이라며 "우리는 사람 죽이는 일 그만하고 살리는 일을 해야 한다. 살리는 일은 바로 전쟁종식 평화의 일인데, 그 답이 DPCW 10조 38항이다. 누구나 다 이 일에 협조하고 평화 세계를 이루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온 세계 국제법 전문가들 21명으로 하여금 DPCW를 만들었다. 어느 나라도 이거 잘못됐다 하는 사람 단 한 사람도 들어보지 못했다. 남의 나라를 침범해서도 안 되고 다 주권을 가지고 살아야 하며, 살상무기는 다 없애야 한다"면서 "각국 모든 대통령들께서 정말 나라와 국민을 사랑한다면 DPCW 10조 38항에

사인해야 한다"고 전했다.

지재섭 HWPL 광주전남지부 이사는 "입으로만 평화를 외치고 전쟁이 없어져야 한다고 할 것이 아니라 평화의 실체가 되어야 한다"며 "광주는 4.19, 5.18을 통해 귀한 생명들이 민주화를 부르짖으며 생명을 잃었다. 40년이 되도록 자기 자녀와 가족이 희생됐다면 대통령께 발리 가서 해결해 달라고 했어야 하지 않겠는가?" 라고 말했다.

또 "이 모든 것을 해결하기 위해 옳은 것은 옳다 하고 아닌 것은 아니라 하는 실체들이 되어야 하고, 자신을 사랑할 줄 안다면 평화를 위해 노력하는 모두가 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전쟁이 없는 평화세상을 이루고 하루빨리 한반도 평화통일을 이루기 위해 우리 모두가 평화의 사자가 됩시다."

39주년을 맞은 5.18민주화운동의 본거지인 민주·인권 도시 광주광역시에 전쟁종식과 세계평화 실현을 갈망하는 시민 1만 여명의 평화의 합성이 울려 퍼졌다.

지난 25일 '세계평화선언문 제 6주년 기념식 및 평화 걷기대회'가 (사)하늘문화세계평화광복(HWPL, 대표 이만희) 광주·송하지부 주최로 광주상무시민공원에서 개최다. 이 행사는 광주·전남(목포, 여수, 순천, 광양)을 비롯해 서울 잠실 올림픽공원과 전국 주요도시 및 전 세계 70여 개국에서 동시에 펼쳐졌다.



▲25일 서울 올림픽공원에서 열린 세계평화선언문 6주년 기념식 및 평화 걷기 행사에 열린 가운데 참석자들이 193개국 유엔 회원국 국가원수에게 평화국제법(DPCW) 지지를 촉구하고 있다.



▲25일 서울 올림픽공원에서 열린 세계평화선언문 6주년 기념식 및 평화 걷기 행사가 열린 가운데 참석자들이 전쟁 없는 세계 평화 실현을 외치고 있다.

### 전 세계에 발송된 피스레터, "전쟁이 아닌 평화를 원하신다면 응답해주세요."

"후손들에게 전쟁 없는 평화세계를 유산으로 남겨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DPCW입니다! 각국 지도자들이 평화를 원한다면 DPCW에 동의하길 바랍니다."



▲25일 광주 시민공원에서 HWPL이 주최한 '세계평화선언문 6주년 기념식 및 평화 걷기' 행사에 시민들이 참석했다.

평화의 손편지, '피스레터(Peace Letter)'는 DPCW의 유엔 본회의 상정 및 통과를 위해 전 세계 시민들이 193개 유엔회원국 국가원수와 유엔대사에게 보내는 편지이다.

HWPL은 그간 174개국에서 630여개 행사를 통해 DPCW가 UN 결의안으로 상정될 수 있도록 촉구하는 캠페인을 진행해왔다. 피스레터 캠페인은 현재까지 약 20만 명이 참여했으며, 최근 3월 청와대에 공식 전달됐다.

HWPL에 따르면 피스레터는 대한민국 외에도 올해 3월까지 192개국 국가원수에게 전달되었으며, 이에 대한 국가적 차원의 지지를 호소하는 시민들의 자발적인 캠페인이 5월과 6월 내내 지속될 것이라 밝혔다.

국내에서는 5월 25일 '세계평화선언문 6주년 기념식' 행사를 바탕으로 평화 걷기와 함께 피스레터 작성이 추가로 진행될 예정이다. 해외에서도 192개국 정상에 이어 정부, 국제기구 관료들에게도 피스레터 전달이 이루어진다.

대통령에게 보내는 손편지를 작성했다는 김정민 씨는 "누구나 DPCW의 내용을 살펴보면, 강대국의 이권대로 약용 가능한 기존의 국제법과 달리 전쟁 종식과 평화를 이룰 수 있는 실질적인 내용이 담겨있음을 알 수 있다"며 "광주시민 150만 명을 넘어 대한민국 모든 국민이 DPCW의 가능성을 직접 확인하고 함께 지지하면 좋겠다"는 바람을 전했다.



▲25일 HWPL이 주최한 '세계평화선언문 6주년 기념식 및 평화 걷기' 행사에서 지구촌 전쟁종식 평화 선언문(DPCW)이 UN 상정을 지지하는 피스레터 퍼포먼스를 진행했다.

정영민 IPYG 부장은 "DPCW는 발표된 지 3년 밖에 되지 않았지만 국가적 차원의 지지를 놀라울 정도로 이끌어내고 있으며, 전 세계 130만 명 이상의 시민이 지지 서명하고 피스레터 활동으로 DPCW를 지지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에는 각국 대통령뿐 아니라 고위 지도자들에게도 피스레터를 발송했다. 국가의 주인인 국민들이 얼마나 평화를 원하는지 지도자에게 보여드린 것"이라며, "우리



▲25일 광주상무시민공원에서 열린 '세계평화선언문 6주년 기념식 및 평화 걷기' 행사에서 HWPL 광주전남지부 이재섭 이사와 광주시민들이 지구촌 전쟁종식 평화 선언문(DPCW) 지지를 촉구하며 걷고 있다.

가 전 세계에 보낸 피스레터에 답장해주시길 바라는 마음으로 평화 걷기를 한다. 이 평화의 걸음으로 밝은 땅은 평화의 세계로 바뀔 것이며, 이는 세계를 바꾸는 목소리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